『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2)*

-권8, 16:18~18:04 부분을 중심으로-

김선영**

요 약

이 글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Yogacārabūṃmi) 권8의 17장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권8의 16장 18행부터 18장 4행까지의 점토석독구결의 잠정적인 해독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점토구결

1. 『유가사지론』 권8의 17장의 내용

이 글은 『유가사지론』(Yogacārabūṃmi) 권8, 17장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권8 16:18~18:04에 대하여 잠정적인 해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業雜染'에 대한 9가지 연고 중 '業分別'에 관한 부분이다. '業分別'은 [1]補特伽羅相差別, [2]法相差別의 2

---

*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5년 10월 22)에서 강독한 요지문을 바탕으로, 강독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

** 서울산업대학교 강사.

종 차별로 말미암는데 이 두 차별에는 10가지 善業道·不善業道가 있다: ① (離)殺生, ② (離)不與取, ③ (離)欲邪行, ④ (離)妄語, ⑤ (離)離間語, ⑥ (離)麤惡語, ⑦ (離)綺語, ⑧ (離)貪慾, ⑨ (離)瞋恚, ⑩ (離)邪見.[1]

본고에서 해독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1]補特伽羅相差別 중 10번째인 邪見에 해당한다. 세부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張次/行次는 다음과 같다.

[1]⑩邪見(16:18-18:04)의 내부 구조	
起如是見	16:18-19
立如是論	16:20
无有施與 无有愛養 无有祠祀	16:20-23
祠祀	16:23-17:01
无有妙行 无有惡行	17:01-03
无有妙行惡行二業果及異熟	17:04-06
无有此世 無有他世	17:06-07
无母 無父	17:07-09
無有化生有情	17:09-10
世間无有眞阿羅漢	17:11-12
正至	17:12-13

1) ① 殺生은 '인간, 축생 따위의 목숨을 살해하는 것'이고, ② 不與取는 '다른 이가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즉 偸盜이고, ③ 欲邪行은 '자기 처첩이 아닌 다른 여자와 婬事를 하는 것'으로 邪淫에 해당하며, ④ 妄語는 '진실치 못한 허망한 말을 하는 것'이고, ⑤ 離間語는 '두 사람에게 대하여, 번갈아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그리하여 쌍방의 사이를 막아서 불화하게 하는 것'으로 즉 兩舌이고, ⑥ 麤惡語는 '남에게 성내게 할 만한 나쁜 말'로 惡口이고, ⑦ 綺語는 '도리에 어긋나며 교묘하게 꾸미는 말'이고, ⑧ 貪欲은 '자기의 뜻에 맞는 일이나 물건을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간의 색욕, 재물 등을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에 해당하고, ⑨ 瞋恚는 '성내는 것'이고, ⑩ 邪見은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옳지 못한 견해'이다.

正行	17:13-14
因時	17:14-15
果時	17:15
自然	17:15-16
通慧	17:16-17
已證	17:17
具足	17:17-18
顯示	17:18
我生已盡	17:18-19
略義	17:19-21
功用	17:21-22
略義差別	17:22-18:01
誹謗流轉	18:02
謗還滅	18:03-04

2. 해독안

이 글에서 점토석독구결의 해독안은 다음과 같이 A부터 E까지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A: 한문 원문 및 원문의 각 한자에 현토된 점토의 위치 및 형태
B: A의 점토를 자토로 轉字한 것
C: 어순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생략된 토를 보충하여 자토석독구결의 형식으로 바꾼 것
D: C의 문법 형태를 고려하여 현대어로 직역한 것
E: 해당 한문 원문에 대한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번역

<유가08 16:18>

A: 復次[23(·)]諸邪見者[51(·)]者[23~33(··)]此[33(·)]是捻句[22~32(·),55(·)]

B: 復次[ㅋ]諸邪見者[ㅣ]者[xㅅㄱ]此[ㄱ]是捻句[ㅐ,ㅎ]

C: 復 次ㅋ 諸邪見者(ㅐ)ㅣ{者}xㅅㄱ 此ㄱ 是 捻句ㅐㅎ

D: 또 다음으로 諸邪見者[2]이라 하는 것은, 이는 捻句이며,

E: (다음에) 사된 소견을 하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

<유가08 16:18-19>

A: 起如是見[51(·)]者[23~33(··)[3]]此[33(·)]顯[역독선]自[23(·)]心[44(·)]忍可欲樂[4자합부-역독선]當所說[42(·)][4]義[34(·),+45(\)#+45~55(\),54~55(.·)]

B: 起如是見[ㅣ]者[xㅅㄱ]此[ㄱ]顯自[ㅋ]心[ㅓ]忍可欲樂當所說[ㄴ]義[ㄹ,ㅇxㅅㄹ,xㅎ]

C: 起如是見(ㅐ)ㅣ{者}xㅅㄱ 此ㄱ 自ㅋ 心ㅓ 當 說(ㅅㄱ) 所ㄴ 義ㄹ 忍可欲樂ㅅㅇㅅㄹ 顯xㅎ

D: 起如是見이라 하는 것은, 이는 자기의 마음에 마땅히 말해야 하는 바의 義를 忍可欲樂하는 것을 나타내며,

E: 이와 같은 소견을 일으킨다 함은 이는 제 마음에 말하는 바의 이치에 있어서 옳다 여기어 바라면서 즐기는 것을 나타냄이며,

---

2) '邪見'은 주로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옳지 못한 견해를 이른다. 온갖 妄見은 다 正理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사견이라 하며 특히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 허물이 중대하므로 사견이라 한다.

3) 우측의 점이 한자의 획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4) '當所說'에 3자합부 역독선의 흔적이 있는 듯하다. 서민욱(2005가)에서는 '當所說'의 3자합부 역독선을 해독에 반영하였다. '當所說'은 하나의 단어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해독에 반영하지 않았다.

<유가08 16:20>

A: 立如是論[51(·),4자합부]者[23~33(··)]此[33(·)][5]顯[역독선]授[역독선]他[23(·),44(·)]當所說[42(·)]義[34(·),+45~55(\),54~55(.·)]

B: 立如是論[ㅣ]者[xㅅㄱ]此[ㄱ]顯授他[ㅋ,十]當所說[ㄴ]義[乙,ノ尸ㅅ乙, xケ]

C: 立如是論(ㅣ)ㅣ{者}xㅅㄱ 此ㄱ 他ㅋ十 當 說(ノㄱ) 所ㄴ 義乙 授ノ尸ㅅ乙 顯xケ

D: 立如是論이라 하는 것은, 이는 남에게 반드시 마땅히 말해야 하는 바의 義를 가르쳐 주는 것을 나타내며,

E: 이와 같은 이론을 세운다 함은 이는 말하는 바의 이치에 있어서 다른 이에게 가르쳐 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가08 16:20-23>

A: 无有施與[35(·)]无有愛養[35(·)]无有祠祀[35(·),+15~25(/),51(·)]者[23~33(··)]謂[33(·)]由[역독선]三種[=42(·)?,뻐침선(42,\)]意樂[34~35(·),22(·)]非撥[2자합부-역독선]施[34~35(·),+45(/),43(·)]故[51(·)]一財物意樂[31(·)]二淸淨意樂[31(·)]三祀天意樂[31(·),51(·)]

B: 无有施與[ㅋ]无有愛養[ㅋ]无有祠祀[ㅋ,ンx矢,ㅣ]者[xㅅㄱ]謂[ㄱ]由三種[ㄴ]意樂[乙,ㅋ]非撥施[乙,尸ㅅ乙,灬]故[ㅣ]一財物意樂[人]二淸淨意樂[人]三祀天意樂[人,ㅣ]

C: 施與 无有ㅋ 愛養 无有ㅋ 祠祀 无有ㅋンx矢ㅣ{者}xㅅㄱ 謂ㄱ 三種ㄴ 意樂乙 由ㅋ 施乙 非撥(ン)尸ㅅ乙灬{故}ㅣ 一 財物意樂人 二 淸淨意樂人 三 祀天意樂人(ㅣ)ㅣ

D: 施與 없고 愛養 없고 祠祀 없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즉 세 가지의 意樂[6]을 말미암아 施를 非撥하는 까닭이다. 첫째 財物意

5) 33(·)이 한자의 획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6) '意樂'는 意念樂欲으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취지이다.

樂과 둘째 淸淨意樂과 셋째 祀天意樂이다.

E: 베풀어 줄 것이 없고 사랑하며 기를 것이 없고 제사지낼 것이 없다 함은, 세 가지의 하려 하는 뜻으로 말미암아 베풀 것이 없다는 것이니, 첫째는 재물에서 하려 하는 뜻이요, 둘째는 깨끗함에서 하려 하는 뜻이요, 셋째는 하늘에 제사지냄에서 하려 하는 뜻이다.

<유가08 16:23-17:01>

A: 供養火[+45(/)#+35(/)]天[34(·),지시선(/)[7]]名[54(·)]爲祠祀[53(·),+51(·.)]

B: 供養火[尸ㅅㄹ]天[ㄹ]名[下]爲祠祀[ㅗ,xㅣ]

C: 火天ㄹ 供養(ㄴ)尸ㅅㄹ 名下 {爲}祠祀ㅗxㅣ

D: 火天[8]을 供養하는 것을 일컬어 祠祀라고 한다.

E: 불의 하늘에게 공양함을 제사 지냄이라 하며,

<유가08 17:01-03>

A: 又顯[역독선]非撥[2자합부-역독선]戒[31(·)]修[31(·),43(·)]所生[33(/),42(·)]善[42(·)]能治所治[34~35(·),+45~55(\),43(:)]故[55(·)]及顯非撥施[43(·)]所生[33(/),42(·)]善能治所治[34~35(·),+45~55(\),43(:)]故[21(·)]

B: 又顯非撥戒[ㅅ]修[ㅅ,ᄭ]所生[ㄴㄱ,ㄷ]善[ㄷ]能治所治[ㄹ,ㄴ尸ㅅㄹ,xᄭ]故[ㅿ]及顯非撥施[ᄭ]所生[ㄴㄱ,ㄷ]善能治所治[ㄹ,ㄴ尸ㅅㄹ,x

---

7) '+35'자리에 여러 점이 찍혀 있는 듯하고 지면이 고르지 못하다. 오른쪽에 있는 '樂'에 찍힌 'ㅗㅣ' 때문에 지시선을 긋고 위의 '火'자에 점토를 기입한 듯하다.

8) '火天'은 범어로 Agni인데 阿耆尼라 음역한다. 火光尊, 火仙, 火神이라고도 한다. 불을 맡은 신으로 태장계외금강부(胎藏界外金剛部)의 1尊이다. 그 형상은 梵天王과 같다.

ᄼ]故 [ㄴ]

C: 又 戒ㅅ 修ㅅᄼ 生ㄴㄱ 所ㄷ 善ㄷ 能治所治ㄹ 非撥ㄴ尸入ㄹ 顯xᄼ{故}ㅁ 及 施ᄼ 生ㄴㄱ 所ㄷ 善 能治所治ㄹ 非撥ㄴ尸入ㄹ 顯xᄼ{故}ㄴ

D: 또 戒와 修로 나는 바의 善의 能治·所治를 非撥하는 것을 나타내는 까닭이며, 보시로 나는 바의 善의 能治·所治를 非撥하는 것을 나타내는 까닭으로

E: 또 계율을 닦는 데서 나는 바의 착함을 다스리거나 다스려질 것이 없다 함을 나타내고 보시에서 나는 바의 착함을 다스리거나 다스려질 것이 없다 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가08 17:03>

A: 說如是[33(·)]言[34(·),22(·)]无有妙行[35(·)]无有惡行[35(·),+51~52(··)[9],54~55(:),뻐침선(42,\)]

B: 說如是[ㄱ]言[ㄹ,ㅈ]无有妙行[ㅎ]无有惡行[ㅎ,xㅣ,xㅁ]

C: 是 {如}(ㅊㄴ)ㄱ 言ㄹ 說ㅈ 妙行 无有ㅎ 惡行 无有ㅎxㅣxㅁ

D: 이와 같은 말을 일러 '妙行이 없고 惡行이 없고 하다' 하며,

E: 이와 같은 말을 하나니, 「아름다운 행이 없고 나쁜 행이 없다」고 하며,

<유가08 17:04-05>

A: 又顯非撥此三種善[42(·)]能治所治所得果[34(·),+45(\),43(:)]故[21(·)]

B: 又顯非撥此三種善[ㄷ]能治所治所得果[ㄹ,ㄴ尸入ㄹ,xᄼ]故[ㄴ]

C: 又 此 三種 善ㄷ 能治所治 所得果ㄹ 非撥ㄴ尸入ㄹ 顯xᄼ{故}ㄴ

9) 51~52의 가까운 위치에 '··'을 기입하고 지운 흔적이 보인다.

D: 또 이 세 가지 善의 能治·所治 所得果를 非撥하는 것을 나타내는 까닭으로

E: 또 이 세 가지의 착함을 다스리는 것과 다스려지는 것과 얻게 되는 과보가 없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가08 17:05-06>

A: 說[역독선]如是[33(·)]言[34(·),22(·)]无有妙行惡行二業果[31(·)]及異熟[31(·),+51~52(··)[10],54~55(:),삐침선(42,\)]

B: 說如是[ㄱ]言[ㄹ,ㅈ]无有妙行惡行二業果[ㅅ]及異熟[ㅅ,xㅣ,xㅿ]

C: 是 {如}(ㅊㄴ)ㄱ 言ㄹ 說ㅈ 妙行 惡行 二業 果ㅅ 及 異熟ㅅ 无有xㅣxㅿ

D: 이와 같은 말을 일러 '妙行 惡行 두 業의 果[11]와 異熟[12]이 없다' 하며,

E: 이러한 말을 하나니, 「아름다운 행과 나쁜 행의 두 가지 업의 결과와 이숙이 없다」고 한다.

<유가08 17:06>

A: 又顯非撥流轉依處緣[34~35(·),+45~55(\),43(·)[13]]故[21(·)]

B: 又顯非撥流轉依處緣[ㄹ,ㄴㄱㅅㄹ,ᄭ]故[ㄴ]

C: 又 流轉依處緣ㄹ 非撥ㄴㄱㅅㄹ 顯ᄭ{故}ㄴ

---

10) 51~52의 가까운 위치에 '··'을 기입하고 지운 흔적이 보인다.

11) '果'는 열매란 뜻으로 변하여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법을 말한다. 唯識宗에서는 果의 종류를 5果, 9果 등으로 나눈다. 5果는 等流, 異熟, 士用, 增上, 離繫이고 9果는 5果 위에 安立, 加行, 和合, 修習의 4果를 더한 것이다.

12) '異熟'은 선악의 業因으로 얻은 無記性의 결과를 말한다. 이에 3釋이 있는데 變異熟은 因이 달라져서 果가 성숙된 것을, 異時熟은 果가 因과 때를 달리하여 성숙된 것을, 異類熟은 果가 因과 別類로 성숙된 것을 의미한다.

13) 구문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다른 행에서는 43위치에 수직 쌍점이 찍혀 있으나 여기서는 단점만 확인된다.

D: 또 流轉依處緣을 非撥하는 것을 나타내는 까닭으로
E: 또, 헤맴에서 의지하는 데의 반연이 없다 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가08 17:07>
A: 說[역독선]如是[33(·)]言[=34(·),22(·)]无有此世[35(·)]無有他世[35(·),+51~52(··),54~55(:),삐침선(42,\)]
B: 說如是[ㄱ]言[乙,ㅈ]无有此世[ㅋ]無有他世[ㅋ,xㅣ,x分]
C: 是 {如}(ㅊㅅ)ㄱ 言乙 說ㅈ 此 世 无有ㅋ 他 世 無有ㅋxㅣx分
D: 이와 같은 말을 일러 '이 세상 없고 저 세상 없고 하다' 하며,
E: 이러한 말을 하나니, 「이 세상도 없고 다른 세상도 없다」고 하며,

<유가08 17:07-09>
A: 又顯非撥彼所託[42(·)]緣[34(·),+45~55(\),=43(/)]故[43(:),55(·)]及非撥彼種子緣[34(·),+45~55(\),=43(/)]故[43(:),21(·)]
B: 又顯非撥彼所託[ㄴ]緣[乙,ノ尸入乙,ㅅㄱ 印]故[xㅠ,分]及非撥彼種子緣[乙,ノ尸入乙,ㅅㄱ 印]故[xㅠ,ノ]
C: 又 彼 託 所ㄴ 緣乙 非撥ノ尸入乙 顯ㅅㄱ 印xㅠ{故}分 及 彼 種 子 緣乙 非撥ノ尸入乙 (顯)ㅅㄱ 印xㅠ{故}ノ
D: 또 그 의탁하는 바의 緣을 非撥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까닭이며 그 種子의 緣을 非撥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까닭으로
E: 또 그 의탁하는 바의 반연이 없다 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종자의 반연이 없다 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가08 17:09>
A: 說如是[33(·)]言[34(·),22(·)]无母[35(·)]無父[35(·),+51~52(··),54~55(:),삐침선(42,\)]
B: 說如是[ㄱ]言[乙,ㅈ]无母[ㅋ]無父[ㅋ,xㅣ,x分]

C: 是 {如}(ᄉᆞᆫ)ㄱ 言乙 說ᄋᆞ 母 无ᄒᆞ 父 無ᄒᆞx ㅣ xᄀᆞ
D: 이와 같은 말을 일러 '母가 없고 父가 없고 하다' 하며,
E: 이러한 말을 하나니,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고 하며,

<유가08 17:09-10>
A: 又顯非撥流轉士夫[34(·),+45(\),43(:)]故[21(·)]
B: 又顯非撥流轉士夫[乙,ㅅ尸ㅅ乙,xᄭ]故[ㅅ]
C: 又 流轉士夫乙 非撥ㅅ尸ㅅ乙 顯xᄭ{故}ㅅ
D: 또 流轉士夫를 非撥하는 것을 나타내는 까닭으로
E: 또 헤맴의 것이 없다 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가08 17:10>
A: 說[역독선]如是[33(·)]言[34(·),22(·)]無有化生有情[+51~52(··),54~55(:),삐침선(42,\)[14]]
B: 說如是[ㄱ]言[乙,ᄋᆞ]無有化生有情[xㅣ,xᄀᆞ]
C: 是 {如}(ᄉᆞᆫ)ㄱ 言乙 說ᄋᆞ 化生 有情 無有xㅣxᄀᆞ
D: 이와 같은 말을 일러 '化生[15] 有情이 없다' 하며,
E: 이러한 말을 하나니, 「바뀌나기 유정은 없다」고 하며,

<유가08 17:11>
A: 又顯非撥流轉對治還滅[34(·),+45(\),43(:)]故[21(·)]
B: 又顯非撥流轉對治還滅[乙,ㅅ尸ㅅ乙,xᄭ]故[ㅅ]

14) 삐침선이 두 선으로 나타난다.
15) '化生'은 4생의 하나로 자체가 없으며 의탁한 데 없이 홀연히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극락에 왕생하는 데 태생과 화생의 2종이 있다. '化生'은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 9품의 행업에 따라서 아미타불의 정토에 있는 칠보연화속에 나서 지혜와 광명과 몸이 모두 보살과 같이 되는 것이다.

C: 又 流轉對治還滅乙 非撥ノ尸入乙 顯x灬{故}ノ
D: 또 流轉對治還滅을 非撥하는 것을 나타내는 까닭으로
E: 또 헤맴의 다스림과 환멸이 없다 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가08 17:11-12>
A: 說如是[33(·)]言[34(·),22(·)]世間[44(·)]无有眞[16]阿羅漢[+51~52(··)[17],54~55(:),삐침선(42,\)]乃至[22~32(·)]廣[22~32(·)]說[51(:)]
B: 說如是[ㄱ]言[乙,ㅈ]世間[十]无有眞阿羅漢[xㅣ,xㅀ]乃至[ㅟ]廣[ㅟ]說[xㅣ]
C: 是 {如}(ㅊㄴ)ㄱ 言乙 說ㅈ 世間十 眞 阿羅漢 无有xㅣxㅀ 乃至ㅟ 廣ㅟ 說xㅣ
D: 이와 같은 말을 일러 '세간에 참 阿羅漢[18]이 없다' 하며, 내지는 널리 말하는 것이다.
E: 이러한 말을 하나니, 「세간에는 참된 아라한이 없다」고 하면서, 자세히 말하기까지에 이른다.

<유가08 17:12-13>
A: 已[24(·)]趣[역독선]各別[33(/)]煩惱寂靜[34(·),21(.·)]故[41(·)]名[54(·)]正至[53(·),55(·)]
B: 已[ㅔ]趣各別[ㄴㄱ]煩惱寂靜[乙,X]故[ㅈ]名[下]正至[ㅗ,ㅀ]
C: 已ㅔ 各別ㄴㄱ 煩惱 寂靜乙 趣X 故ㅈ 名下 正至ㅗ(ㄴ)ㅀ
D: 이미 各別한 煩惱의 寂靜를 趣하니, 그러므로 일컬어 正至라고 하며

16) 이체자이다.
17) 51~52의 가까운 위치에 '··'을 기입하고 지운 흔적이 보인다.
18) '阿羅漢'은 소승의 교법을 수행하는 聲聞 4과의 가장 윗자리를 말한다. 應供, 殺賊, 不生, 離惡이라 번역한다.

E: 이미 각기 따로의 번뇌가 고요함에 나아가기 때문에 바르게 이른다고 하며,

<유가08 17:13-14>
A: 於諸有情[23(·),44(·)]遠離邪行[34(·),+15(·)]行[역독선]无倒行[34(·),21(.·)]故[41(·)]名[54(·)]正行[53(·),55(:)]
B: 於諸有情[ㅋ,十]遠離邪行[乙,口]行无倒行[乙,X]故[ㅈ]名[ㅜ]正行[ㅗ,xㅎ]
C: {於}諸 有情ㅋ十 邪行乙 遠離(ㄴ)口 无倒行乙 行X 故ㅈ 名ㅜ 正行ㅗxㅎ
D: 모든 有情에게 邪行을 遠離하고 无倒行을 行하니, 그러므로 일컬어 正行이라고 하며,
E: 모든 유정들에게 사뙨 행을 멀리 여의고 뒤바뀜 없는 행을 행하기 때문에 바른 행이라 하며,

<유가08 17:14-15>
A: 因時[34~44(·)]名[54(·)]此世間[53(·),54~55(:)]
B: 因時[火]名[ㅜ]此世間[ㅗ,xㅎ]
C: 因時火 名ㅜ 此 世間ㅗxㅎ
D: 因時를 일컬어 이 世間이라고 하며,
E: 원인의 시기를 이 세간이라고 하고

<유가08 17:15>
A: 果時[34~44(·)]名[54(·)]彼世間[53(·),55(:)]
B: 果時[火]名[ㅜ]彼世間[ㅗ,xㅎ]
C: 果時火 名ㅜ 彼 世間ㅗxㅎ
D: 果時를 일컬어 저 世間이라고 하며,

E: 결과의 시기를 저 세간이라고 하며,

<유가08 17:15-16>

A: 自[23(·)]士夫力[43(·),경계선]之所作[33(\),43(:)]故[21(·)]名[54(·)][19]
爲自然[53(·),54~55(:)]

B: 自[ㅋ]士夫力[ᄭ]之所作[ㅅㄱ,xᄭ]故[ㅅ]名[ㅏ]爲自然[ㅗ,xㅁ]

C: 自ㅋ 士夫力ᄭ{之} 作ㅅㄱ 所xᄭ{故}ㅅ 名ㅏ {爲}自然ㅗxㅁ

D: 자신의 士夫力으로 짓는 바인 까닭으로 일컬어 自然이라고 하며,

E: 스스로 사람(士夫)의 힘으로 짓는 바이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한다.

<유가08 17:16-17>

A: 通慧[51(·)]者[23~33(··)]謂第六[20][34(·),43(·),54~55(:)]

B: 通慧[ㅣ]者[xㅅㄱ]謂第六[ㄹ,ᄭ,xㅁ]

C: 通慧(ㅐ)ㅣ{者}xㅅㄱ 謂 第六ㄹᄭxㅁ

D: 通慧라 하는 것은, 즉 여섯 번째로 하며

E: 통혜라 함은 여섯 번째를 말하며,

<유가08 17:17>

A: 已證[51(·)]者[23~33(··)]謂由見道[34(·),22(·),+15~25(/),55(·)]

B: 已證[ㅣ]者[xㅅㄱ]謂由見道[ㄹ,ㅋ,ㅅxㅊ,ㅁ]

C: 已證(ㅐ)ㅣ{者}xㅅㄱ 謂 見道ㄹ 由ㅋㅅxㅊㅁ

D: 已證이라 하는 것은, 즉 見道[21]를 말미암아 하는 것이며,

---

19) 54(·)이 한자의 획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20) '六' 중간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선이 있다.

21) '見道'는 見諦道라고도 한다. 온갖 지식으로 잘못 아는 소견을 여읜 자리로 소승에서는 3賢, 4善根의 수행을 마치고 世第一位의 직후 무루(無漏)의 지혜를 일으켜 16心으로써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4諦의 이치를 관찰하고, 지식으로 잘못된 소견을 여의어 처음으로 聖者라 칭하는 位이다. 16심 가운데 앞에

E: 이미 증득하였다 함은 견도로 말미암아서이며,

<유가08 17:17-18>

A: 具足[51(·)]者[23~33(··)]謂由修道[34(·),22(·),+15~25(/),55(·)]

B: 具足[ㅣ]者[xㅅㄱ]謂由修道[乙,ㅈ,ㅅxㅊ,分]

C: 具足(ㅢ)ㅣ{者}xㅅㄱ 謂 修道乙 由ㅈㅅxㅊ分

D: 具足이라 하는 것은, 즉 修道를 말미암아 하는 것이며,

E: 두루 갖추었다 함은 수도로 말미암아서이며,

<유가08 17:18>

A: 顯示[51(·)]者[23~33(··)]自[23(·)]所知[33(\),43(:)]故[55(·)]爲他[23(·),24(·),구결자(ㅐ)]說[43(ㅣ)]故[21(·),51(:)]

B: 顯示[ㅣ]者[xㅅㄱ]自[ㅋ]所知[ㄴㄱ,xᄭ]故[分]爲他[ㅋ,ㅐ]說[xᄭ]故[ㄴ,xㅣ]

C: 顯示(ㅢ)ㅣ{者}xㅅㄱ 自ㅋ 知ㄴㄱ 所xᄭ{故}分 他ㅋ {爲}ㅐ 說xᄭ{故}ㄴxㅣ

D: 顯示라 하는 것은, 자신의 아는 바인 까닭이며 남을 위하여 말하는 까닭이다.

E: 나타내 보인다 함은 스스로도 알게 되고 다른 이를 위하여 말하기 때문이며,

<유가08 17:18-19>

A: 我生已盡等[32(/)]當知[51(·)]如餘處[44(·)]分[33~43(/)#33(/)[22],+

15심은 見道, 제16심은 修道에 딸린다.

22) '/'이 '分'의 중간 가로 획에서 아래로 좀 떨어져 위치하며 '當ㅅ 知ㅁㅣ', '知ㄴㅎ{應}ㅊㅣ' 구문의 목적어 절에 특징적으로 'ㄴㄱㅢㄱ'이 붙는 점을 고려하여 33~43(/)을 앞세웠다. '當ㅅ 知ㅁㅣ', '知ㄴㅎ{應}ㅊㅣ' 구문은 도치된 경우

11(·)]別[33(·),+11~21(·),지시선(/)]

B: 我生已盡等[X]當知[ㅣ]如餘處[十]分[ㄴㄱ 卩,丁]別[ㄱ,攴]

C: 我生已盡 等X 當(ㅅ) 知(ㄲ)ㅣ 餘 處十 分別(ㄴ)ㄱ {如}攴ㄴㄱ 卩丁

D: 我生已盡 등이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른 곳에서 분별하는 것과 같은 줄을.

E: 나의 삶이 이미 다하였다 하는 등은 다른 곳에서 분별하는 것과 같은 줄 알아야 한다.

<유가08 17:19-21>

A: 此[42(·)]中[22~32(·),42(·)]略義[22~32(·)]者[15~25(-),23~33(·)]謂顯示[2자합부-역독선]謗[역독선]因[34(·),+15~25(-),+31(·)]謗[역독선]果[34(·),+15~25(-),31(·)]誹謗功用[34(·),+15~25(-),+31(·)]謗眞[23]實[34(·),51(:)]事[34(·),+15~25(-),+31(·),지시선(/)]

B: 此[七]中[氵,七]略義[刂]者[尸,入ㄱ]謂顯示謗因[乙,ノ尸,人]謗果[乙,ノ尸,人]誹謗功用[乙,ノ尸,人]謗眞實[乙,xㅣ]事[乙,ノ尸,人]

C: 此七 中氵七 略義刂{者}尸入ㄱ 謂 因乙 謗ノ尸人 果乙 謗ノ尸人 功用乙 誹謗ノ尸人 眞實事乙 謗ノ尸人乙 顯示xㅣ

D: 이 가운데의 略義인 것은, 즉 因을 謗하는 것과 果를 謗하는 것과 功用을 誹謗하는 것과 眞實事를 謗하는 것을 顯示한다.

E: 이 중에, 간략한 이치라 함은 원인을 비방하고 결과를 비방하고 공용을 비방하고 진실한 일을 비방한다함을 나타내 보임이며,

---

와 도치되지 않은 경우에 토의 현토 양상이 다른데 도치된 경우에는 도치된 후행절이 'ㅣㄱㄱ, ㄴㄱㅣㄱㄱ, ㄴㅊㅣㄱㄱ' 등으로 끝나고, 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ㄴㄱㅣㄱ'으로 연결된다. 위의 '當知' 구문은 도치된 것으로, 그 현토 양상에 따라 'ㄴㄱㅣㄱ'에 대응하는 33~43(/)을 해독에 반영한 것이다.

23) 이체자이다.

<유가08 17:21-22>

A: 功用[51(·)]者[23~33(··)]謂殖種功用[+31(·),4자합부]任持功用[+31(·)?]來徃功用[+31(·)]感生業功用[+31(·),51(·)]

B: 功用[ㅣ]者[xㅅㄱ]謂殖種功用[ㅅ]任持功用[ㅅ]來徃功用[ㅅ]感生業功用[ㅅ,ㅣ]

C: 功用(ㅢ)ㅣ{者}xㅅㄱ 謂 殖種功用ㅅ 任持功用ㅅ 來徃功用ㅅ 感生業功用ㅅ(ㅢ)ㅣ

D: 功用[24]이라 하는 것은, 즉 殖種功用과 任持功用과 來徃功用과 感生業功用이다.

E: 공용이라 함은 씨를 심는 공용과 맡아 지니는 공용과 오고 가는 공용과 업을 받아 나는 공용이다.

<유가08 17:22-18:01>

A: 又有略義差別[33(/),51(·)[25]]謂顯示[2자합부-역독선]誹謗[2자합부-역독선]若因[31(·)]若果[31(·)]若流轉緣[31(·)?]若流轉士夫[31(·),34(·),+45~55(\),54~55(:)]及顯誹謗彼對治還滅[34(·),+45~55(\),51(:)[26]]

B: 又有略義差別[ㅅㄱ,ㅣ]謂顯示誹謗若因[ㅅ]若果[ㅅ]若流轉緣[ㅅ]若流轉士夫[ㅅ,乙,ノ尸ㅅ乙,xか]及顯誹謗彼對治還滅[乙,ノ尸ㅅ乙,xㅣ]

C: 又 略義 差別ㅅㄱ 有ㅣ 謂 若 因ㅅ 若 果ㅅ 若 流轉緣ㅅ 若 流轉士夫ㅅ乙 誹謗ノ尸ㅅ乙 顯示xか 及 彼 對治 還滅乙 誹謗ノ尸ㅅ乙 顯xㅣ

D: 또 略義 差別한 것이 있다. 즉 因과 果와 流轉緣과 流轉士夫를

24) '功用'은 몸, 입, 뜻으로 짓는 것으로 곧 동작, 말, 생각을 말한다.

25) 51(·)이 한자의 획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26) 이 부분의 종이가 지저분해서 아랫점이 명확하지 않다.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誹謗하는 것을 顯示하며, 저 對治 還滅을 誹謗하는 것을 나타낸다.

E: 또, 간략한 이치의 차별로써 원인과 결과와 헤맴의 반연(流轉緣)과 헤맴의 것(流轉士夫)을 비방한다 함을 나타내 보이고 저 다스림과 환멸(對治還滅)도 비방한다 함을 나타내며,

<유가08 18:02>

A: 又誹謗流轉[34(·),15~25(/),51(·)]者[23~33(··)]應知[42(\),51(·)]謗因[34(·),+53(/)]不[역독선]謗[역독선]自相[34(·),15~24(/),33~43(·),+11(·)]

B: 又誹謗流轉[乙,ㅅx矢,ㅣ]者[x入ㄱ]應知[ノ亠七,ㅣ]謗因[乙,x亠]不謗自相[乙,ㅅ仝,印,丁]

C: 又 流轉乙 誹謗ㅅx矢ㅣ{者}x入ㄱ 知ノ亠{應}七ㅣ 因乙 謗x亠 自相乙 謗ㅅ仝 不(矣)印丁

D: 또 流轉을 誹謗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알아야 한다, 因을 謗하는 것이지 自相을 謗하는 것이 아닌 줄을.

E: 또 헤맴을 비방한다 함은 원인은 비방하면서 제 모양을 비방하지 않는 것인 줄 알아야 하며,

<유가08 18:03-04>

A: 謗還滅[34(·),15~25(/),51(·)]者[23~33(··)]應知[42(\),51(·)]謗[역독선]彼功德[34(·),+53(/)]不謗補特伽羅[34(·),15~24(/),33~43(·),+11(·)]

B: 謗還滅[乙,ㅅx矢,ㅣ]者[x入ㄱ]應知[ノ亠七,ㅣ]謗彼功德[乙,x亠]不謗補特伽羅[乙,ㅅ仝,印,丁]

C: 還滅乙 謗ㅅx矢ㅣ{者}x入ㄱ 知ノ亠{應}七ㅣ 彼 功德乙 謗x亠 補特伽羅乙 謗ㅅ仝 不(矣)印丁

D: 還滅[27]을 謗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알아야 한다, 저 功德을 謗하는 것이지 補特伽羅를 謗하는 것이 아닌 줄을.

E: 환멸을 비방한다 함은 그의 공덕을 비방하면서도 푸드갈라는 비방하지 않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주(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6)」,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213-232.

김영욱(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57-77.

김천학(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0)」, 『구결연구』 15, 구결학회, 283-293.

남풍현(1999),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박준석(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7)」, 『구결연구』 15, 구결학회, 245-257.

박진호(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2)」,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216-231.

서민욱(2005가), 「『유가사지론』 권5·8의 점토구결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민욱(2005나),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5)」,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197-212.

손명기(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9)」, 『구결연구』 15, 구결학회, 269-281.

이승재(2001), 「『유가사지론』 각필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229-250.

이승재·안효경(2001), 「각필 부호구결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성암본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

27) 覺性의 근원에 돌아가서 寂滅한 이치를 깨달음. 곧 미혹한 생각을 돌이켜 悟道로 향하는 것이다.

회, 115-145.
이 용(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3)」,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233-247.
이전경(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4)」,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221-243.
장경준(2002),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기입된 구결자와 대응 구결점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205-225.
장경준(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192-212.
장경준(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점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조은주(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8)」, 『구결연구』 15, 구결학회, 259-267.

〔150-04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 4가 92번지 현대2차아파트 1101호〕
E-mail: bigrp@dreamwiz.com
접수일자: 2005. 12. 20.
게재결정: 2006. 01. 25.

A Study on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Focusing on vol. Ⅷ. 16:18-18:04-

Kim, Sun-young

This paper surveys the textual structure of chapter 17 in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vol. 8, and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from ch. 16 verse 18 to ch. 18 verse 4 of that volume.

*Key words: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cipher kugyol(點吐口訣)